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시내버스 LED 안내판 설치

정읍시는 관할 구역 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53대의 행선지 안내 표시판을 기존 아크릴판에서 LED 안내판으로 교체했다.

시는 기존에 사용했던 아크릴판이 흐린 날이나 야간에 식별하기가 어려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음에 따라 간 식별과 원거리 식별이 용이한 LED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LED 안내판은 차고지에서 즉시 노선 변경이 가능하고, 경유지는 다음 도착지로 이동 중 주요 경유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노선 개편 시 행선지와 노선번호 변경이 용이하다.

또한 노선 표시뿐만 아니라 시정 정보와 각종 행사, 공연 등 시민들에게 유용한 소식도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결핵예방 캠페인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제7회 결핵예방주간을 맞아 부안읍 터미널 일원에서 결핵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려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안읍 터미널 일원을 돌며 결핵의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고 5가지 결핵예방 생활 수칙 등을 홍보했다.

5가지 결핵예방 생활수칙으로는 ▲2주 이상 기침할 때 결핵검진 ▲기침예절 ▲꾸준한 운동 ▲균형 있는 영양섭취 등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기침할 때 소매 끝으로 입을 가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침 예절을 강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거의 100% 완치하기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소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흉통, 피로와 미열 등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무료검진을 받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맞춤형 급여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신규 수급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시행 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제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효과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읍면동지역에 맞는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발굴하고 있으며, 2016년 1,087세대 1,888명의 신규수급자에 맞춤형 급여 등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연계한 바 있다.

2017년 기준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으나 아직 혜택이 미치지 못한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구성된 복지이동장제, 복지기동대 등 인적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을 독려하고, 관내 25개소 복지관과 재가복지시설을 통해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동안 해당지에 한하여 교육급여 동시 신청 안내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0원인 세대 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별 후 밀접 상담을 통해 맞춤형급여 신청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이 초과하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현지출장을 통한 사실조사로 관리 구제를 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청안내와 신규수급자 발굴을 통해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김제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홈페이지 공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 등 51개 사업 선정

김제시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실명 이력관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책리스크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담당자 이름을 걸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제시는 시장 공약사업을 비롯해 각종 시정현안, 10억 이상 예산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에 대해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의해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매년 선정, 시 홈페이지(www.gimje.go.kr) 공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새만금 김제류 찾기,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을 포함한 총 248개의 사업에 대해 진행단계마다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사업 내역서를 공개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된 총 51개 사업을 선정

중에 있으며 4월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전 과정을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공직자 스스로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등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은 "주요정책들에 대해 입안단계부터 진행상황, 추진 결과를 여과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신뢰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정책 실명제 운영 통해 시민들 신뢰도 ↑

정읍시가 정책 실명제 운영을 통해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생생하게 남기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 중회의실에서 '2017년 정읍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과 1억원 이상 용역사업,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조례제정과 개정요 구되는 사업 등 모두 33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들 사업 모두를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이날 중으로 시 홈페이지(www.jongseup.go.kr)를 통해 사업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4월 중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용역과 착공,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참여한 공직자와 용역 연구기관 관계자, 사업수행기관 등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이를 시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선 5기부터 주요 정책 실명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성기 시장은 "시민 관심이 큰 주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사업 과정과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받는 정읍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를 '청렴도와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 외에도 '부패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외부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15대 세부 이행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 산하 전 직원들이 '부패ZERO, CLEAN 정읍'을 목표로 청렴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최우수상'

부안군 행자부 주관... 읽기 쉽고 활용성 뛰어나

부안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공모에 응모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디자인과 활용성이 뛰어난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장려하려고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자치단체로부터 총 143건을 접수·추천받아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 3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부안군에서 추천한 부안읍 봉신길 고광철씨 주택의 건물번호판이 건물과 조화로우면서 읽기 쉽고 활용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평가돼 설치사례 중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철씨의 건물번호판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다른 참가자의 작품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보건소, 내 혈압 혈당 숫자알기 캠페인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27일 김제전통시장 5일장을 맞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전통시장 버스승강장과 축협연쇄점 주차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와 공동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내 혈압 혈당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내 혈압, 혈당 숫자"를 알고 건강혈압, 혈당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혈압과 혈당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장애 발생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5%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은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의 적정 치료와 관리를 통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으로의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질환 인지율과 치료율 및 조절율이 현저히 낮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상당수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캠페인에서는 심뇌혈관질환 바로알기 및 예방수칙 홍보, 혈압·혈당 측정, 심검검 먹기, 건강상담 등 방문간호사의 전문상담이 가능하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홍보물품 배부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간담회 개최

2017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성덕면 탄상하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은 성덕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장 선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

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 등이 이뤄졌으며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및 의견 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ulberry wine bottle and a glas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Experience the taste of mulberry wine with Bu-an Gangsan Myeongju). It lists various gift sets: 1. 750ml 2ea, 2ea/16%, 2. 750ml 2ea, 1ea, 오프너/12%, 3. 750ml 1ea/12%, 4. 500ml 2ea, 2ea/12%, 5. 375ml 5ea/13%, 6. 500ml 2ea/12%, 375ml 1ea/13%, 375ml 1ea, 오프너. Contact info: TEL: 063-594-8990, www.gangsanwine.com.